

2007년도 고전시가 분야 연구 동향

고정희(아주대)

1. 개관
2. 갈래별 연구 동향
 - 2.1 고대가요·향가
 - 2.2 고려가요·경기체가·약장
 - 2.3 시조
 - 2.4 가사
 - 2.5 잡가·20세기 전반 시가
 - 2.6 일반론·기타
3. 전망과 제언

1. 개관

2007년도 시가문학 분야에서는 교주본을 포함한 단행본 15권, 박사학위 논문 5편, 석사학위 논문 14편, 학술지 논문 150여 편의 연구 성과가 나왔다. 대부분이 그동안 연구사의 주변부에 있던 작가, 가집의 이본, 새로운 문헌자료, 작품의 수용과 향유 양상, 20세기 전반 시가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들은 연구사의 빈틈을 메우고 주류 작품 중심의 연구 편향을 반성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학문적 의사소통 없이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매진하는 경향도 있다. 실제로 연구사에서 쟁점으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나, 거듭 논의된 작품일지라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읽어내려는 노력은 현저히 줄고 있다. 이런 추세 하에서는 일정한 연구 동향이 형성되기가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연구 성과들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한 관심이 이어졌던 19세기 초반 가집 연구에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이 시기 가집의 실상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조선후기 시조와 가사의

담당층을 경화사족과 향촌사족으로 나누고 향촌사족 내에서도 士農分岐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읽어낸 연구들은 담당층을 세분화함으로써 작품 읽기를 진전시킨 성과가 있다. 또한 『진본 청구영언』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 그 편찬 의도나 작품의 배열 양상, 무명씨 시조의 작자 문제 등과 관련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었던 것도 고무적이다. <청산별곡>과 같이 해석의 합의점을 찾기가 지난한 작품에 대해서 제목, 화자, 각 연 간의 관계, 작자, 창작시기와 장소에 대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작품 연구의 기본기를 다지는 논문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밖에도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적지 않을 것이나 필자의 관심과 능력의 한계로 짚어내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갈래별 연구 동향을 살펴면서 앞으로 시가 연구가 나아가갈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¹⁾

2. 갈래별 연구 동향

2.1 고대가요·향가

관련 자료가 빈약하여 연구사적 진척을 이루기 쉽지 않은 고대가요와 향가에 대해 의외로 많은 연구가 제출되었다. 대개는 고대가요나 향가의 배경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대자료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모색한 예인데, 새로 제시한 자료가 작품 해독에 얼마나 결정적인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무도하가>에 대한 변유유의 석사논문은 <공무도하가>의 현전하는 모습은 중국으로의 전파과정에서 변이된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곽리자고는 중국 사람의 이름으로서 한국에는 이런 성씨나 이름이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곽리자고를 조선인이라 명시한 중국문헌이 발견된 바²⁾ 있듯이, 어떤 연구자라도 모든 문헌자료를 섭렵할 수는 없으므로 자료 적용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1) 기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한 단행본은 꼭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남재철, 「<공무도하가>의 국적」,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5.

조용호는 <황조가>를 번역하고 양식적 특징을 살핀 결과, <황조가>는 특정한 대상을 전제하고 부른 연모시가 아니라, 독신자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배우자를 구하는 구애민요의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하였다. <황조가>는 유리가 지은 것도 아니고, 고구려에서 발생한 노래도 아니며, 부여에서 젊은 독신자들이 이성을 그리며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재홍은 향가의 공간적 상상력과 모성에 대한 2편의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모두 학회의 기획주제에 부응한 논문들이다. 이 중 「신라 사회의 모성과 향가」는 『화랑세기』의 다양한 어머니상 및 모성의 정치적, 제도적 양상을 검토하여 향가의 역사성과 보편성을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 신재홍은 다년간의 연구에서 『화랑세기』를 향가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도 긍정도 없었던 것은 학문의 의사소통을 위해 안타까운 일이다.³⁾

2006년 향가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향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서철원은 신재홍의 『향가의 미학』(2006)에 대한 서평을 제출하였는데, 다른 견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에 서서 본격적인 비평을 펴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서철원은 향가의 소멸과 고려속요의 형성이라는 전환기 고전시가의 국면을 어조와 이미지의 차이를 중심으로 논한 논문도 제출하였다. 향가에서 고려속요의 양식적 전변을 문장 종결 방식을 통해 살핌으로서 향가나 고려속요의 형식적 본질에 접근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향가의 문장 종결 형태에 대한 해독상의 이견이 없다면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이연숙, 김선기, 이승남, 박인희 등은 향가와 배경설화를 둘러

3) 신재홍의 저서(2006)에 대한 본격적인 서평이 올해 초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최재남은 명정한 검증이 이루어져 『화랑세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는 이 책을 새로운 운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본 저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화랑세기』의 경우 그것이 신빙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저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것이고, 위서라고 한다면 위서를 만든 사람의 인식과 태도를 벗겨내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주문하였다. (최재남, 「향가의 해석과 미학의 맞물림-신재홍, 『향가의 미학』(집문당, 2006)에 대한 단견-」, 『고전문학과 교육』 제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2.)

싼 콘텍스트 해석에 주력하였다. 이연숙은 균여 향가를 밀교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균여 향가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고, 김선기는 향가기술문과 詩話의 같고 다른 점을 살펴, 일연의 작품 선별의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승남은 신충괘관조를 분석하여 일연이 엄밀한 실증적 태도를 바탕으로 삼국사, 삼화상전, 고승전, 별기 등의 여러 다른 기록들을 신충괘관조로 옮긴 것을 논증하였다. 박인희는 <풍요>가 실려 있는 양지사석 조 전체와 義解편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애썼다.

2.2 고려가요 · 경기체가 · 약장

학위논문으로는 <월인천강지곡>의 底經을 세밀하게 추적한 김기종의 박사논문이 눈에 띄며, 고려속가의 시·공간 의식을 다룬 김성은과 고려속가의 욕망 표출 구조를 다룬 이윤선, <서경별곡>의 창작배경과 연군가적 성격을 다룬 이현주의 석사논문 3편이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이현주의 논문은 ‘서경’이란 지역의 역사 사회적 성격을 면밀히 고찰한 성과가 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11편 정도로 양적으로 많지 않은 가운데 <청산별곡>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이 주목된다. 정재호는 「<청산별곡>론 서설」을 통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들을 꼼꼼히 거론하면서 작품 해석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그 결과 <청산별곡>의 화자가 8명이고 8연은 각기 독립성을 지닌 개별적인 노래이며, <청산별곡>은 개인의 창작이 아니고 서민 대중에 의해 창작된 민요라고 주장하였다. 창작시기는 <정과정> · <한림별곡> 등과 같이 가집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12세기에서 13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았다. <청산별곡>의 화자가 8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 논문은 작품 연구의 모범적 사례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민찬은 <청산별곡>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문헌기록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7연과 백수희 혹은 잡희, 5연과 석전희, 3연과 학무의 관련을 상정하고 ‘사슴’은 사슴 분장을 한 사람, ‘돌’은 석전희에 쓰이는 돌, ‘새’는 학무에 등장하는 새 분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새

로운 문헌자료를 적용하는 신중한 태도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된다.

김승우는 <봉래의> 정재를 중심으로 <용비어천가>의 향유·수용 양상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용비어천가>가 실제 진행되는 양상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주목할 만한 편차를 드러내게 되는데, 임금이 등좌한 연행현장에서는 ‘선왕의 성덕과 성공을 칭술하는 것(稱述先王盛德成功)’이 강조된 형태로 나타나고, 지방관현과 일반 백성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비어천가 約本』에는 ‘자손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 삼는 것(爲子孫保守之道)’이 강조된다. 이로써 애초 <용비어천가>가 제작될 당시에 있었던 왕권과 신권 사이의 긴장 요인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작품의 향유·수용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본래 작품이 지닌 특성까지 역추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수곤은 <정읍사>의 여성 화자의 태도를 고찰하여, <정읍사>의 여성은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온 여성의 타자성과는 다른 태도-사랑의 주체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전시가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하여 여성 화자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을 드러내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 화자를 고찰하는 입체적인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무룡은 경기체가를 신흥사대부의 찬양과 과시의 장르로 해석하는 일반론에 반대하여 <죽계별곡>을 재해석한 바, 이 작품은 안축의 민족의식과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러낸 노래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김성문은 <만전춘별사>의 시적 문맥과 정서 표출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작품 속의 화자를 일관된 여성 화자로 설정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를 갖춘 작품으로 <만전춘별사>를 해석하였다. 그 밖에 <쌍화점>의 공연공간에 대한 정갑준의 논의, 선초 악장의 정립 과정을 살핀 김명준의 논의, <정읍사>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살핀 정인숙의 논의 등도 주목되는 연구들이다.

2.3 시조

시조 분야에서는 예년과 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성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단행본으로는 김용찬과 전재강이 근간에 발표한 논문들을 묶어 내놓았고, 몇 권의 주해서들도 나왔다. 김명준은 김태준의 『조선가요집성』을 교주해 냈고, 윤영옥은 『안민영이 읊은 가곡가사-금옥총부해석』을 펴냈다. 성무경은 『19세기 초반 가곡가집, 영언』과 『18세기 중·후반 사곡(詞曲)가집, 고금가곡』을 주해하여 학계에 보고하였다. 『영언』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성무경은 여타 가집과의 공출 작품을 통해 이 가집이 『육당본 청구영언』과 친연성이 가장 높은 19세기 초·중반 가집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편찬자가 알려진 가집들은 대개 18세기 중반과 19세기 중·후반 가집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초·중반의 가곡 향유와 가집 편찬의 실상에 대한 학계의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최근 2~3년간 여러 연구자들이 19세기 초·중반 가집의 실상 파악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나온 『영언』의 교주본이 이 시기 가집 연구에 활기를 더해 줄 것이다.

때마침 허영진은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의 가집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놓았다. 이 시기 익명의 편찬자에 의해 편집된 다수의 가집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가 근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몇 단계로 제시하였다.

19세기 초·중반에 해당하는 가집의 하나인 『홍비부』의 이본에 대한 논문도 나와 눈길을 끈다. 전재진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악부』 가운데 乾冊이 『홍비부』의 전사본임을 밝히고, 『홍비부』와 『악부』를 대상으로 19세기 초·중반과 20세기 초반이라는 기간에 걸쳐 두 가집에 일어난 통시적 변화를 살폈다. 이어 『악부』(나손본)의 독출 작품들 중 통제영 지역을 언급한 작품들이 있다는 데 착안하여 지금의 통영 지역이 조선후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풍요로운 음악 문화적 기반을 갖춘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홍비부』에 한양 도성의 문물이나 풍광을 드러낸 작품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가집이 서울을 문화적 기반으로 하는 주류의 가집과는 다른 가집이 아닐까 추정하는 데 그쳤는데, 전재진의 논의를 통해 그러한 추정이 신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상원도 가집 『客樂譜』를 소개하면서 19세기 전반 가곡사에 대한 관심을 재환기하고 있다. 1974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생 정영숙이 제출한 석사논문의 부록으로 정리해 놓은 『객악보』의 2차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지만 가곡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19세기 전반은 여창가곡의 분화가 나타나고, 율당삭엽이 포함된 가곡 편가의 체계를 갖춘 중요한 시기이다. 『객악보』는 율당삭엽이 포함된 가곡 편가의 온전한 체계를 갖춘 첫 가집이며, 여창가곡이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기 이전에는 남창가곡의 후반부에 수록되는 체제를 취하였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가집으로, 그 동안 실체를 잘 파악할 수 없었던 19세기 전반기 가집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자료이다.

이처럼 익명의 편찬자에 의해 편집된 가집들에 대한 연구가 진전될수록 19세기 초·중반 가집의 시대적 특징과 지역 문화에 기반한 가집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으로 서울 중심의 가곡 문화의 주류를 형성한 3대 가집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본 청구영언』은 몇몇 연구자들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가집이다. 강재현은 박사논문에서 『청구영언』의 편찬에서 보이는 김천택의 시조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종합적인 논의를 폈다. 강옥란은 진본 『청구영언』의 ‘만횡청류’ 작품들이 실린 악곡들에 주목한 석사논문을 제출하였다. 만횡청류 작품이 후대에 농·낙·편의 세 가지 변주곡으로 고루 불렸지만 셋 사이에 노랫말의 형식적 변별성이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는 세 악곡 사이의 친연성과 불확정성 때문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였다.

김학성은 『진본 청구영언』의 편제 양상을 고찰하여 이 가집이 新調 중심이자 名品 지향의 가곡집임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正聲(本歌曲)의 경우 이삭대엽이 명품으로서 대표적 곡목으로 자리를 굳히고, 만횡청류는 아직 淫聲(농·낙·편의 小歌曲)으로 양식화되기 이전의 前形態로서 가집 내에서 독립 악곡의 목록으로 격상될 만큼 완성된 모습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여항-시정의 조각품을 시정적 명품(이것이 농·낙·편의 소가곡임)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18세기 전환기의 시조의 모습

이라는 것이다.⁴⁾

그의 논의는 명품을 모은 가곡집을 만들어 가곡을 널리 전파·소비시키겠다는 김천택의 고급문화 지향의식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견해를 반박한 부분이 많아 주의를 요한다. 김학성은 만황청류를 농·낙·편의 세 가지 곡의 집합개념으로 보고, 18세기 당시 이미 유래가 오래된 노래라고 한 김천택의 기록을 신뢰하며, 만황청류는 물론 <장진주사>·<맹상군가>도 동일한 가곡창계 장가로 봄으로써 김용찬의 기존 연구를 모두 반박하고 있다. 김용찬은 만황청류를 단일양식으로 보고, 성립 시기를 18세기로 추정하며, 가곡창 계통의 노래로 보지 않고, <장진주사>·<맹상군가>는 만황청류와는 또 다른 갈래의 노래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연구자들은 두 학자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연구사적 판단을 내려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떠나서 이러한 논쟁을 계기로 가집 연구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

남정희는 『진본 청구영언』의 無名氏의 성격을 재검토하면서 이삭대엽 내에서 무명씨 작품들이 작가명을 잃어버린 채 향유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애썼다. 이 연구에서 무명씨 작품의 일반적인 경향을 지적하고, 무명씨 가운데는 후대에 작가가 밝혀진 사족층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은 선행 연구를 보완한 성과이다. 그러나 작가가 유실된 채 향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18세기 경화의 개방적인 여항 공간과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남정희는 「『진본 청구영언』 내 평시조에 나타나는 여성적 목소리와 그 의미」라는 논문도 제출하였다. 18세기 전반 평시조에 나타난 여성적인 목소리를 검토하여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는 화자는 남과의 애정만이 아니라 인관관계의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시조 작품 내부로 끌고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간 고려속요에서부터 사설시조에 이르는 여성화자를 통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드러

4) 이 논문에 쓰인 本歌曲/小歌曲이라는 용어는 김영운의 박사논문에서 원용한 것이다. 김영운은 농·낙·편 등 ‘체’를 활용하여 악곡이 확대된 변주곡을 『학포금보』의 예를 따라 소가곡이라 칭하고, 그에 대응하는 용어로 그렇게 변주되기 이전의 삭대엽 본래 구조를 지니고 있는 악곡을 본가곡이라 칭하였다.(김영운, 「가곡 연창형식의 전개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참조.)

나지 못한 데 비해 대상 자료를 세분화하여 장르별·시대별 문제의식을 변별해 낸 성과가 있다.

『해동가요』에 대해서는 강재현이 「『해동가요』 소재 김수장 자작 시조 배열 의도」를 발표하였다. 김수장이 자신의 작품을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구분하여 배열한 것은 당대 유행하던 곡조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설시조를 김천택처럼 따로 묶지 않은 것은 변주곡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정곡과 동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보이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가집에 대한 연구가 작품의 배열 순서에서 편찬의도를 읽어내는 데까지 발전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가곡원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곡원류계 가집들의 편차가 주목되고 있다. 강경호는 가곡원류계 가집의 하나인 『해동악장』을 살펴, 이 가집이 대원군 관련 왕실과 박효관·안민영의 예인그룹 등 특정 향유 범위에서의 所用을 위해 편찬된 가집이라고 주장하였다. 승평계 가단과 관련해서는 김용찬의 「안민영과 『승평곡』」도 참조할 만하다. 이 논문은 2002년 새롭게 발굴된 안민영의 개인 가집 『승평곡』에 대한 연구로, 가집의 용도와 평가 형식을 살폈다. 이처럼 많은 이본들을 지닌 가곡원류계 가집들에 대한 개별 연구가 축적될수록 당대 가곡 문화의 구도가 선명해질 것은 분명하다.

신경숙은 20세기 초 『가곡원류』의 급격한 단절에 의문을 품고, 20세기 초 『가곡원류』 전승의 향방을 추적하여 「하순일 편 『가곡원류』의 성립」이라는 논문을 내놓았다. 근대 최초의 민간 음악교육기관인 ‘조양구락부’의 가곡교사였던 하순일이 1910년 편집한 『가곡원류』를 통해 『가곡원류』가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전승되었음을 확인하고 박효관의 가곡으로부터 현행(하규일 전창)에 이르는 계보 사이에는 가객 하순일이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유진은 『남훈태평가』를 근거로 삼아 시조창 향유층이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는 학계의 일반론에 의문을 품고 『남훈태평가』가 시조창 가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도전적 가설을 제기하였다. 그의 주장은 정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종장의 생략으로 볼 수 없다고 논한 22.8%의 작품들도 관점에 따라서는 종장이 생략된 작품으로 볼 수 있고⁵⁾, 『남훈태

평가』가 독서용 가집이었다는 사실도 시조창과의 관련을 반박하는 직접적인 증거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시조창 향유층이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일반론도 논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시조의 향유 및 수용과 관련해서는 이상원의 2편의 논문을 주목할 만하다. 「19세기 말 화서학파의 <고산구곡가> 수용과 그 의미」에서는 19세기 후반 화서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중앙 김평묵과 성재 유중교의 <고산구곡가> 수용 양상을 살피고, <고산구곡가>가 노론·기호학파의 학통과 내부 논쟁과 관련되어 있는 양상을 밝혔다.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시가사적 위상」에서는 <개암십이곡>을 발굴·소개한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개호잡록』이 김국채의 손질이 가해진 자료라는 사실을 새로 밝히고, <개암십이곡>의 창작 당시 정황을 보다 상론하였다.⁶⁾ <도산십이곡>을 계승한 첫 작품으로서 이후 ‘유가형 시조’의 향방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암십이곡>에 대한 관심이 이 연구를 계기로 증대되길 기대한다.

작가별로는 신희, 이정보, 이세보, 이중경, 김광욱, 권섭, 권호문, 정훈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박해남, 「신희(申欽)의 시조 창작 배경과 작품 양상」은 신희 시조에 대한 그간의 논쟁과 거리를 둔 반면⁷⁾, 박상영은 유가적 세계관과 도가적 세계관 사이에서 팽팽한 쟁점을 형성해 온 연구사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해석을 꾀하였다. 그는 신희시조의 외적구조와 내적 구조를 분석하여 두 구조가 서로 맞물려 ‘초월을 표방한 현실주의’라는 텍스트의 의미 지향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복잡한 분석기준에 비해 결론이 다소 범박한 감은 있으나 신희시조 30수를 남김없이 구조화하려는 노

5) 이 작품들은 모두 3음절이 줄어 든 작품들이다.

6) 김우평의 상주 이거 및 본래 남명의 문하에 있었던 김우평이 퇴계의 문하에 든 사실과 관련한 창작 정황 등을 밝히고 있다.

7) 이 연구도 기존의 논쟁을 의식하여, 신희의 시조 작품들을 연작시라는 측면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시간의 순서라든지 이념의 표현태로써가 아니라 그 스스로 ‘시름’의 해소를 위한 일련의 작품군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전의 시조 창작 배경이 잔치라는 공유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신희에게는 개인적 공간으로 설정된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변이는 성정을 중시하여 이념적·규범적 공간을 중시하던 문학 양상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력과 치밀한 분석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⁸⁾

예년과 달리 옥소 권섭에 대한 논의가 1편밖에 나오지 않았다. 권섭에 대한 기존 논의가 전대의 사대부와의 대비를 통해 18세기의 새로운 경향성만을 강조해 온 데 반해, 양정화의 석사논문은 권섭이 전형적인 사대부적 세계관을 견지한 점과 당대의 음악 주류와는 달리 古調를 지향하는 음악적 성향을 드러낸 점⁹⁾ 등을 들어 권섭 시조의 과도기적 성격을 주장하였다.

김창원은 해남윤씨 족보를 살펴, 지속적으로 중앙 권력을 지향하고 서울과 그 주변을 벗어나 살지 않으려는 윤씨가 특유의 정서를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은 <어부사시사>의 갈등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 서울 및 근기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양반들이 가졌던 독특한 생활정서를 통해 작품에 깔린 구체적인 정서를 읽어내고자 한 논의는 작품 연구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 나정순은 남원의 재지사족으로서 예학의 중심에 있었던 최상중을 통하여 정훈의 사상적 기반을 추적해 봄으로써 재지사족의 신분적 성격과 정훈의 문학 세계를 결부하여 온 선행연구를 보강하고 있다. 박이정은 서로 다른 성격 및 지향을 보이는 이중경의 어부 노래 3편이 국문 시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논증하였다. 김상진은 이정보의 시조 가운데 사대부적 질서에서 이탈되는 시조의 유형을 찾아보고, 그 이탈의 이유를 탐구하였다. 기존 연구는 이정보 시조의 독특한 개성에 초점을 둔 것과, 18세기 경화사족의 보편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양분되었는데, 김상진의 논의는 작가의 내면의식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양자를 아우른 의의가 있다.

사설시조에 대한 논문도 몇 편 있었으나 문제적인 논문은 드문 편이다. 사설시조에도 한시를 차용한 작품들이 여러 편 존재한다는 데 주목하여 한시문의 차용 양상을 살피고 이로부터 사설시조의 장르적 특성을 추출하고

8) 외적구조는 도가적 초월의 세계를 긍정하면서 유가적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경우(19수)와 두 세계를 모두 긍정하는 경우(11수)로 나뉘며, 내적구조는 초월적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주체-객체'의 이자구조와, 유가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주체-객체-개념'의 삼각구조로 나뉜다고 주장하였다.

9) 이 점은 신경숙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로, 논자는 이 연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신경숙, 「옥소 권섭의 음악경험과 18세기 음악환경」, 『국제어문』 36집, 국제어문학회, 2006.)

자 한 조홍욱의 연구와, 明代 民歌와의 비교를 통해 만항청류에서 제기된 남녀 애정과 욕망의 문제를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사적 맥락 속에서 살피고 자 한 조성진의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주제나 내용에 대한 연구에 비해 시조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희철과 그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한 양덕점은 시조창으로 불린 시조들의 종장말에서 생략된 생략어구들의 유형과 시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매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논의들이 시조의 문학성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낳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은경은 ‘-하노라’, ‘-로다’와 같은 시조와 가사의 관습적 종결표현이 『두시언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양상을 규명하는 논문과, 시조 종장 첫 구에 많이 쓰이는 ‘두어라’의 연원이 굴원의 초사 <離騷>의 종결구에 쓰인 “已矣乎”에 있음을 논증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2.4 가사

2007년에 나온 단행본은 모두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을 묶은 것들이지만 박경주와 조세형의 저서는 가사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을 만하다. 박경주의 『규방가사의 양성성』은 여성문학 안에 당시 여성과 남성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녹아 있나 하는 점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 논저이다. 근래 페미니즘적 시각에 기반한 여성문학연구를 보완하는 의의가 크나, 새로운 대안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성격의 후속 논의가 요구된다. 박경주는 「兩性共有文學으로서 규방가사의 특성 고찰」을 통해 저서에서 전면부각시키지 못한 양성성의 문제를 다루는 보론을 시도하고 있다.

조세형의 『가사의 언어와 의식』은 사고와 표현, 생각하기와 글쓰기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가사를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저자의 판단에 따라 가사의 장르적 성격, 시적 담화 양식, 작자의식과 문체, 담당층의 세계관 등을 폭넓게 다룬 저서이다. 시가의 본질상 ‘무엇을’ 노래하는가보다는 ‘어떻게’ 노래하는가가 창작과 향유의 관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사는 유독 ‘표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인색한 편이다. 이런 가운데 가사에 나타

난 담당층의 세계관과 표현의 관계를 다루는 이 논저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가사를 대상으로 한 5편의 학위논문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임재욱의 박사논문인 「12가사의 연원 연구」이다. 12가사를 음악과 문학 양쪽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그 연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이 논문은 12가사에 속하는 많은 작품들이 고려가요나 악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12가사와 고려가요·악장 사이의 음악적 유사성과 문학적 유사성을 입증하고자 애썼다. 그런데 문학적 유사성을 주장하는 논거 가운데 제목의 무맥락성, 노랫말의 산만성, 여음구, 반복구 등은 고려가요와 가창가사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이기에 앞서 민요에 기반한 노래들의 공통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어 논거로서 미약한 감이 있다. 그러나 “문학적 평가와는 반대로 12가사가 세련되고 수준 높은 경지를 구축한 음악 양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조선시대 궁중 음악의 예술적 관록을 충실히 계승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추었으며, 음악적 측면에 주목하여 12가사의 실상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높이 사야 마땅하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서 연구자들의 공통된 관심을 발견하기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논의, 창작정황을 통해 작품을 면밀히 이해하려는 논의, 담당층의 세분화를 통해 작품해석의 진전을 꾀한 논의 등이 눈에 띈다.

새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의로는 김유경의 「최초의 사행가사 <장유가(壯遊歌)> 연구」와 윤주필의 「경복궁중건 연회시가를 통해 본 전통 공연문화 연구」가 있다. 김유경은 2005년 임형택 교수가 발굴 소개한, 현전하는 최초의 사행가사인 남용익의 <장유가> (1667)의 구성방식, 대일·대청 의식, 진술방식을 살폈다. 윤주필은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여 경복궁중건 과정에서 공연된 전통 연회의 실상을 상세하게 재구하는 가운데 그 실상을 추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는 연회가사에 특히 주목하였다. 비록 연회가사에 대한 판독과 주해는 후속연구로 미루어 놓았지만 이 논의만으로도 한문학과 구비문학과 의 경합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사라는 장

르의 적응력을 확인할 수 있기에 크게 주목된다.¹⁰⁾

김광조는 창작정황과 창작의도를 면밀히 살펴 거듭 논의된 작품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논문을 제출하였다. 「<누항사>에 나타난 ‘歎窮’의 의미」에서는 ‘탄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해결하기 위해 <누항사>의 창작연대와 창작의도를 고찰하였다. 창작연대를 1596년으로 변증하고 그간 크게 주목된 적이 없었던 古寫本에 기재한 이덕형의 ‘命作’을 창작의도로 해석한 점이 새롭다. <누항사>는 박인로 자신의 체험이나 시대 상황에 대한 개인적 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란과 기근으로 인해 동요하는 민심을 노래를 통해 교화하고자 한 이덕형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헌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누항사>에 개입된 이덕형의 의도와 시대적 의미까지 밝혀 낸 의의가 있다. 김광조는 ‘강호가사’로 분류되어 온 <상춘곡> · <면양정가> · <성산별곡>의 작중 공간과 창작의도를 변별한 논문도 제출하여, 같은 강호가사 유형 안에서 개별적인 작품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사 담당층의 의식과 작품과의 관련을 논한 논의로 가장 주목해 볼 것은 김석희의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치산 관련 여성형상」이다. 조선후기 향촌사회를 배경으로 한 치산 관련 여성형상이 부각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여 그 사회사적인 동인을 파악하고, 여성형상의 유형과 추이를 검토한 논문이다. 治家型, 生業投身型, 致富型으로 나뉘는 여성형상은 모두 士農分岐에 처한 향촌사족층의 운명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하였다. 그의 논의는 京鄕分岐를 따르는 경화사족과 향촌사족 사이, 士農分岐에 따른 詩家와 田家 사이의 변별지점과 그 특성이 좀 더 정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였다.

경화사족과 향촌사족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안혜진의 논문도 참조할 만하다. 「18세기 가사를 통해 본 경향사족간 의식의 거리 -

10) 윤주필은 전통 제례 및 공연문화를 직접 체험한 어떤 작가가 그 내용을 시가의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군을 ‘연회시가’라 일컫고, 연회시에는 민요, 상량문과 참요시, 가사의 여러 유형이 있었으니 구비문학/한문학/국문문학이 경합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도 연회가는 모두 4종의 장/단형 작품과, 각 작품에도 이본이 다수 발생할 정도여서 오늘날 전통연회의 공연상황을 재구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향촌문제를 중심으로」에서는 향촌문제를 중심으로 18세기 향촌사족 가사와 경향사족 가사를 대비해 보고, 작품에 나타나는 차이를 논하였다. 향촌사족 가사에서는 현실비판 가사를 통해 향촌문제를 단독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경향사족 가사에서는 기존 유형을 계승하여 향민들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공동체 문제로서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구강의 <사미인곡>에 주목하여 19세기 경향사족의 의식을 읽어내려 하고 있다. 즉 구강의 <사미인곡>에 나타난 탈규범적·탈이념적 특성은 조선후기 경향사족 가사가 나아갔던 흐름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조세형의 「후기가사의 표현 특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는 그의 저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식과 표현의 관계를 탐구한 논의인데, 후기가사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들-‘반복’, ‘열거’, ‘장형화’-을 일반화하고 그러한 양상이 생겨난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이행기를 근대 사실주의를 향한 질주로만 이해하는 시각을 반성하고, 이행기의 중층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의의가 있다.

김석희, 안혜진과 같이 담당층을 세분화하여 작품에 숨겨진 의도를 발굴해내는 작업과, 조세형과 같이 이행기라는 시대 의식과 관련된 가사의 표현적 특징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상보작용을 하면서 가사에 대한 이해를 진척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는 계층적 특수성과 시대적 보편성을 함께 지닌 장르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양자 모두 당대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인 점검과 함께 작품의 미시적인 특성에 대한 집요한 탐구가 수반될 때 진전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타의 연구 가운데 윤덕진, 「송강가사 전승사실의 맥락」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송강가사가 정파적 지향을 함께 하는 동류 당인들에게는 충군 이념을 사실로써 확인하는 지표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당파의 수용자들에게는 충신연주지사의 일반적 주제로서 포용되었음을 밝혔다. 노소분쟁의 치열함이 유지되던 18세기 말까지 이러한 전승의 면모는 지방으로의 전승권 확산을 수반하면서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제와 타자 - ‘복선화음가’ 계

열 가사를 중심으로」도 주목된다. 이 연구는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를 재 음미하여, 이 시기 대중성을 보인 가사가 그 내부에 다양한 인물 군상을 포 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었다는 점이 전통적 양식의 해체를 요구받 던 시기에 가사의 대응력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5 잡가·20세기 전반 시가

단행본과 학위논문은 나오지 않았으며 학술지에 10여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고전시가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의를 지닌 논문들이 많았다. 고은지와 최현재는 20세기 전반 잡가를 다루면서 ‘유성기’라는 매체에 주목한 점에서 공통된다. 고은지는 「20세기 초 시가의 새로운 소통 매체 출 현과 그 의미 -신문, 잡가집 그리고 유성기음반을 중심으로-」에서 유성기 음반은 20세기 고전 시가의 새로운 소통 매체로, 이를 통해 고전 시가사가 변모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20세기 전 반 소통 매체의 다양화와 잡가의 존재 양상 -잡가집과 유성기 음반을 중심 으로-」에서는 잡가의 연구 대상을 『한국속가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잡가집 의 출판목록과 유성기 음반자료로 확대한 결과, 잡가가 1930년대 들어 쇠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성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최현재는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에서 <난봉가> 계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20세기 전반기 소통 매체와 연행환경의 변화에 이들 작품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였다. 유성 기 음반이라는 신매체와 결합한 잡가 <난봉가>계 작품들은 1930년대 중 반 이후 탈잡가화·‘사설의 체계화’와 ‘정서의 일원화’- 경향을 띠면서 이것 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점차 쇠퇴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잡가 집과 유성기 음반에 실린 목록을 중심으로 한 고은지의 개괄적인 논의와, 개별 작품에 나타난 사설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살핀 최현재의 논의가 ‘잡 가의 쇠퇴’ 문제와 관련하여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 개별 작품들에 대한 귀 납적 논의가 축적될 때, 개괄적 논의를 수정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신경숙, 「일제 치하 조선노래를 지켜온 창가 교사, 李尙俊: 이상준 잡가집을 중심으로」도 20세기 전반 잡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다. 당대 가장 많은 잡가집을 발간한 서울의 창가교사 이상준의 6권 잡가집을 하나의 사례로 분석하면서 1913년부터 15년에 걸쳐 발간된 이들 잡가집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 특징들을 갖는지를 밝혔다. 아울러 조선구악과 외래창가는 근대 초 가요공간에서는 담당층, 가사, 악곡 등 제 방면에서 그 경계가 모호한 채 혼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개화기 시가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시가와 외래 시가의 역할을 다룬 논문도 제출되었다. 김영철은 개화기(1876~1910) 시가 연구에서 제기된 이식문화론, 전통단절론을 극복하고 한국문학의 연속성 체계를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장르·형식·문체·사상의 차원에서 고전시가의 전통이 개화기 시가에 접맥된 양상을 살폈다. 4·4조 반복리듬의 풍미나 4행시, 사시가, 한문체의 연속 등을 확인하고 개화기 문학이 고전문학의 절정기이자 완성기로 봄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홍성란은 개화기(1876~1910)에 애국과 계몽이라는 시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시조가 어떻게 대응하여 형식의 변화와 장르를 실현해 나갔는가를 구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신현규는 1918년에 발행되어 620여 개의 창가가 수록된 『조선미인보감』을 본격적인 검토자료로 삼아 개화기(1910년대 전후) 창가¹¹⁾와 시조 및 가사의 양상을 밝히고 있다. 『조선미인보감』에 창작된 작품들은 조선 전기에 형성된 시조와 가사의 원래 형태들을 최대한 유지하고 개화기의 시대적 성격에 상응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논하였다. 조규익은 개화기(1894~1910)에 왕성하게 창작·가창되던 창가 출현의 기본적 동인을 기독교의 도입과 번역 찬송가의 출현에서 찾는 연구를 제출하였다. 전통적인 요소(가사)와 외래적 요소(악곡)가 만나 양자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안출에 성공한 경우가 바로 창가였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개화기 시가에 대한 논문은 전통장르가 새로운 시대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또는 외래적인 요소와 만나 어떻게 전통을 유지하면서 변모되어 갔는가에 주목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가운데 창가교사 이상준에 대

11) 이 글에서 창가는 新詩를 제외한 개화기 시가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였다.

한 신경숙의 논문은 전통 장르와 외래 장르가 혼효되고 있었던 실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육민수, 구사회, 국윤주, 박애경의 논문도 비슷한 시기의 시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육민수는 1908년과 1914년에 출판된 초당문답계열 가사집 두 권을 고찰하였다. 『편편기담경세가(片片奇談警世歌)』는 1908년 보문사에서, 『만고기담처세가(萬古奇談處世歌)』는 1914년 신구서림에서 활자본으로 출판되었다. 두 이본은 鉛活字 인쇄 방식에 따른 대량 생산·대량 유통의 근대적 서적 유통 환경 안에서 출판된 텍스트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이 논문은 상업적 이윤 추구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출판 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사집을 면밀히 비교하였다. 구사회는 우고 이태로(1848~1928)가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국했던 면암 최익현(1833~1906)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면암선생문집초(勉菴先生文集抄)』와 『면암집초부제가서(勉菴集抄附諸家書)』의 자료적 성격을 고찰하면서 여기 실린 가사 작품 5편을 해제하고 있다. 또한 이태로의 문집 초고본인 『우고선생문집』에서 미공개 가사 작품인 <농부가>를 발굴하여 작품에 나타난 애국적 형상화를 살핀 논문을 제출하였다.

국윤주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시가작품 가운데 민요 ‘홍타령’을 시조에 도입하여 양식화한 작품 34수를 가리켜 ‘홍타령 시조’라 칭하고 이 시조들의 양식적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수용자인 신문독자 대중과의 소통양상을 살피고 신문매체 소재 시조작품의 의의를 규명하는 데 힘썼다. 박애경은 <서유견문록>(1902)과 <해유가>(1908년 이후로 추정)를 통해 대한제국기 ‘서양’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논문을 제출하였다. 구지식에 익숙한 작가가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인 가사로 쓴 서양에 대한 인식은 근대와 전근대가 혼류하던 이 시기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압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보듯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대를 연구자에 따라 20세기 초, 개화기, 대한제국기, 일제 치하 등으로 달리 일컫고 있다. ‘20세기 초’는 가장 중립적인 용어로서 개화의식이나 척사의식 등의 이념과도, 일제에 대한 항거나 우국의식과도 거리가 먼 ‘대중’들의 시가 향유

현상을 다룰 때 주로 쓰인다. 이에 비해 개화기나 대한제국기, 일제 치하 등의 용어는 시대정신을 체현한 작자층을 다루거나 전통양식과 외래양식 사이의 접점을 강조할 때 쓰이고 있다. 시조, 가사, 잡가, 창가가 여러 매체와 맞물려 소용돌이쳤던 이 시기 시가의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그 어떤 장르의 향유층도 탈시대적인 ‘대중’으로만 존재하기도 어렵고, 시대이념을 육화한 이데올로기만 존재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이 시기 시가를 해석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듯하다.

2.6 일반론 · 기타

시가 연구의 일반적인 시각 및 전망과 관련된 논의들, 하나의 모티프나 주제를 중심으로 시가의 변모를 통시적으로 살피거나 하위양식의 미적 특성을 살피는 논의들, 비교문학적 논의들을 들 수 있다.

최재남은 송순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그간 소홀히 했던 사실인 송흥의 영향, 문집에 수록된 <면양정가>의 한역본과 『잡가』에 수록된 <면양정가>의 대교문제, 사회비판적 한시에 대한 재평가 문제, 실록 등의 기록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언어와 표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아울러 향촌사회의 문화공간에서 문학을 향유하는 양상에 대한 관심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²⁾

정병현은 1990년에 창립하여 18권의 논문집을 발간한 『고시가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연구 동향을 ①작가에 대한 연구 ②작품 창작과 세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③작품의 구조에 대한 논의 ④자료의 발굴과 해석으로 연구를 나누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문학 연구의 핵심을 차지하는 작품에 대해 지금까지의 문

12) 향촌문화공간으로서의 堂과 亭은 향촌사회의 문화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학 공간으로서의 堂과 놀이 공간으로서의 亭이 지닌 본래의 성격과 함께 각 지역에서 편차를 보이는 양상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학 연구가 합당한 대접을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 둘째, 민족주의나 리얼리즘, 작가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셋째, 작가·세계·작품을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단계를 고루 거쳐 온 연구사가 이제는 독자의 역할 강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연구자의 반성과 제언은 2007년도 연구 동향을 살피는 이 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3장에서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특정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조세형, 조규익, 이형대의 연구가 있다. 조세형은 애정시가의 문학적 관습 속에 시공간적 상상력이 개재하는 양상을 점검하고 그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조규익은 송도(頌禱) 모티프의 연원과 전개양상을 살펴 고려시대 당악과 속악 정재의 창사에서 발원한 송도 모티프가 조선후기까지 변모해 간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폈다. 이형대는 규방가사와 민요, 계몽가사의 모성 표상을 대비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장르 및 시대, 계층에 따라 작품에 형상화된 모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거시적으로 조망하였다.

이 밖에 비교 연구로는 향가와 『만요슈』에 나타난 시형, 향가와 와카의 문학사적 의의, 시조와 와카의 율격적 특징과 미의식을 비교한 박영준의 논문과, 시조와 하이쿠의 창작과 향유 방식을 비교하여 ‘틀’로부터 자유로운 한국과 ‘틀의 문화’로의 지향에 근거하는 일본의 문화적 풍토의 상이성을 지적한 김정례의 논의가 있다. 이형대·임경화는 한·일 어부 노래의 전개양상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비적 특질을 밝혔다. 그간 중국의 어부시와의 상관성 해명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 일본 어부시와의 비교는 없었다는데 문제의식을 두었으나, 한·일시가의 공통점이 크지 않아 비교 논의의 성과도 그에 따라 제한되었다. 비교문학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상대에 비추어 우리 시가의 본질이 드러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기대해 본다.

3. 전망과 제언

이상 갈래별 연구 동향을 일별하면서 적절치 못한 비평을 가한 부분이 있을까 무척 염려스럽다. 연구사의 주변부에 놓여 있던 대상이나 주제를 다

론 논문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거니와, 아예 연구사적 맥락에서 일탈해 버림으로써 비평은커녕 단순 독해조차 어려운 논문들도 많았다. 바야흐로 논문을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른 시대를 당하여 각자가 연구사적 맥락과의 접맥을 중시하면서 소통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학문적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온 논문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예들은 이미 1장의 개관을 통해 밝혀 놓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성급한 감이 있다. 어떤 연구의 의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고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견인해 낼 때 비로소 분명히 감지될 수 있다. 이전에 나온 논문 중에서 2007년의 시점에서 유난히 임팩트가 큰 연구가 있다면 김석희의 「19세기 초중반 가집 『홍비부』의 노랫말 변용 양상」, 「19세기 초중반 가집 『청구영언 육당본』의 노랫말 변용 양상」, 「『홍비부』와 『청구영언 육당본』을 통해 본 노랫말 변용의 두 흐름」과 같은 일련의 논문들이다.¹³⁾ 이 연구들은 19세기 초반 가집들의 문학적 중요성을 일깨우고, 익명의 편찬자에 의해 편찬된 가집들을 연구하는 선례를 남겨, 19세기 초중반 가집들에 대한 현재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앞에서 살핀 많은 논문 중에서 어떤 논문이 그만한 임팩트를 지니고 학계의 반향을 불러올지를 예측해 봄으로써 연구 동향 정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집에 드러나 있는 여러 정보들과 항목들의 체계를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읽어내는 단순독해(simple reading)를 지양하고, 현상들의 정보들을 진단해냄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징후발견적 독해(symptomatic reading)¹⁴⁾를 표방한 김학성의 연구는 향후 가집 연구의 방법론적 지침으로 새겨둘 필요가 있다. 향촌사족 내부에서 일어난 土農分岐에 주목한 김석희의 연구는 담당층을 세분화하려는 작금의 연구 경향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이다. 향유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사

13) 이 논문들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발표한 논문으로 김석희,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에 모두 재수록되었다.

14) 가집의 질서화 원리와 그러한 질서의 근거로 작동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들의 정보를 진단하는 것을 '징후발견적 독해'라고 명명하였다.

에서 홀대해 왔던 가집과 가사집의 이본에 관심을 기울인 신경숙, 이상원, 전재진, 육민수의 논문도 후속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병현이 강조한 독자에 대한 연구는 <고산구곡가> 수용에 대한 이상원의 논문, <송강가사> 전승에 대한 윤덕진의 논문, <용비어천가>의 향유·수용 양상을 검토한 김승우의 논문에서 이미 설득력 있는 성과들을 얻고 있는 듯하다. 이들 연구들은 독자와 향유층이 작품의 사후적 의미를 생산하는 제2의 창작자일 수 있음을 개별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유 문화의 이론과 실제 모두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향유 문화에 집중하는 경우에도 최재남의 제언처럼 원본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는 기본을 충실히 한 바탕 위에서 문화사적인 구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작품의 창작 배경, 세분화된 담당층, 개별 가집의 편찬 상황, 독자나 향유 양상 등과 같은 작품의 콘텍스트에 대한 연구들은 전망이 밝은 데 반해 근래 시가 연구에서 본격적인 작품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품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경험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시가 연구의 본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의 형식이나 시학에 대한 탐구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작품의 언어와 표현에 대한 세심한 분석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고대가요 · 향가

<단행본>

김영수, 『고대가요연구』, 단국대출판부, 2007

김인환, 『한국고대시가론』, 고려대출판부, 2007

<학위논문>

변유유, 「<공무도하가>연구-중국시가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경상대 석사논문, 2007.2

<학술지논문>

김신기, 「『삼국유사』 향가기술문의 詩話的 조명」,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8

김선숙, 「『삼국유사』 무왕조의 서동설화에 대한 검토」, 『한국학논집』 제42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11

김진욱, 「"광덕·엄장" 인물 유형 분석을 통한 <원왕생가(願往生歌)> 화자(話者) 연구(研究)」,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2

김혜진, 「향가를 통해 본 신라인의 자연인식」, 『문학과환경』 제6권 1호, 문학과환경학회, 2007.6

박상진, 「향가의 삼구육명(三句六名)과 십이대강보(十二大綱譜)의 관계 - 균여 향가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사학회, 2007

박인희, 「"義解"로 풀어본 양지사식(良志使錫)과 <풍요(風謠)>」, 『고시가연구』 제2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8

서유경, 「'공무도하가'에 대한 표현 교육론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8

서철원, 「한국 서정시의 미학, 그 원류를 향한 도전적 모색: 『향가의 미학』 신재홍 저, 서평」, 『고전과 해석』 제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4

서철원, 「향가(鄕歌)와 고려속요(高麗俗謠)의 장르적 차이를 통해 본 전변(轉變) 양상(樣相)의 단서」,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신영명, 「<서동요>의 역사적 성격」, 『우리문학연구』21, 우리문학회, 2007

신영명, 「죽지랑, 아름다운 얼굴」, 『고시가연구』 제2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8

- 신영명, 「꺠이여 물의 시대를 맞이하라」, 『고전과 해석』 제2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7.4
- 신재홍, 「고전문학과 공간적 상상력: 향가의 공간적 상상력」,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6
- 신재홍, 「신라 사회의 모성과 향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7
- 양희철, 「무돌 김신기의 향찰 연구」, 『한국학논집』 제42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11
- 오태근, 「<구지가> 서사의 封祭機能 연구」, 『洙上古典研究』 제26집, 洙上古典硏究會, 2007. 12
- 이승남, 「삼국유사 신충괘관조에 나타난 일연의 서사적 시각」, 『한국사상과 문화』 제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 이승남, 「향가 주술성의 담론층위와 현실적 의미맥락」, 『한국사상과 문화』 제3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 이연숙, 「꺠여 향가의 밀교적 성격과 문학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5집, 한국문학회, 2007.4
- 이완형, 「<讚耆婆郎歌>에 숨겨진 의도와 노래의 기능」, 『語文學』 第96輯, 한국어문학회, 2007.6
- 임경화, 「향가의 근대 : 향가가 ‘국문학’으로 탄생하기까지」, 『한국문학연구』 제32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6
- 정우영, 「<薯童謠> 解讀의 爭點에 대한 檢討」, 『국어국문학』 제147호, 국어국문학회, 2007.12
- 조용호, 「<황조가>의 구애민요적(求愛民謠的)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12
- 조평환, 「향가와 變文의 비교연구」, 『동아시아고대학』 제16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12
- 황병익, 「『삼국유사』 수로부인조와 <헌화가>의 의미 재론」,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5
- 황병익, 「『삼국유사』 죽지랑조와 <모죽지랑가>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제13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9

2. 고려가요 · 경기체가 · 약장

<단행본>

윤성현, 『속요의 아름다움』, 태학사, 2007

<학위논문>

-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底經과 문학적 성격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07.2
 김성운, 「고려속가의 시·공간 의식 연구-이별노래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논문, 2007.2
 이운선, 「고려속가의 욕망 표출 구조와 의미」, 경북대 석사논문, 2007.6
 이현주, 「<서경별곡>의 창작배경과 연군가적 성격」, 부경대 석사논문, 2007.8

<학술지논문>

-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底經과 사상적 기반」, 『어문연구』 제53집, 어문연구학회, 2007.4
 김명준, 「선초 악장의 정립 과정과 그 의미」, 『고전과 해석』 제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10
 김성문, 「<만전춘별사>의 시적 문맥과 정서 표출양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21집, 우리문학회, 2007.2
 김세중, 「한국 음악 속의 <동동>」,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2
 김승우, 「<용비어천가> 향유·수용양상의 특징과 그 의미 -<봉래의> 정재를 중심으로 -」,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민찬, 「연회 관련 문헌 기록에 비추어 본 <청산별곡>」, 『어문연구』 55집, 어문연구학회, 2007.12
 이수근, 「<정읍사>의 여성 화자 태도와 그 의미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여성 화자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앞으로의 과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정갑준, 「<쌍화집>의 공연 및 공연공간에 대하여」, 『한국극예술연구』 제26집, 한국극예술학회, 2007.10
 정무룡, 「<죽계별곡> 새로 읽기」, 『한민족어문학』, 제50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6
 정인숙, 「<정읍사>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9
 정재호, 「<청산별곡>론 서설」, 『고전과 해석』 제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4

3. 시조

<단행본>

- 김용찬, 『조선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월인, 2007
김태준 저, 김명준 교수, 『조선가요집성』, 다운샘, 2007
성무경 교수, 『19세기 초반 가곡가집, 영언』, 대동문화연구가집자료총서1, 보고사, 2007
윤덕진·성무경 주해, 『18세기 중·후반 사곡(詞曲)가집, 고금가곡』, 대동문화연구가집자료총서2, 보고사, 2007
윤영옥, 『안민영이 읊은 가곡가사-금옥총부해석』, 문창사, 2007
전재강, 『시조 문학의 이념과 풍류』, 보고사, 2007

<학위논문>

- 강동훈, 「송강 시조문학의 문화담론 모색」,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7.2
강옥란, 「진본 『청구영언』 ‘만횡청류’의 향유양상과 텍스트 특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7.8
강재현, 「김천택의 시조관과 구현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2007.2
박순, 「기녀시조의 문학적 특성 연구」, 동의대 석사논문, 2007.8
변은숙, 「이세보 시조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7.8.
양덕점, 「이세보 시조 종장 말의 표현 연구」, 청주대 박사논문, 2007.6.
양정화, 「18세기 사대부 시조 미학의 한 양상 : 옥소 권섭의 시조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7.8
이순례, 「한국여성시조의 변모양상 연구」, 동의대 박사논문, 2007.8
최준선, 「사설시조의 서사적 진술방식 연구」, 강릉대 석사논문, 2007.8

<학술지논문>

- 康京浩, 「歌集『海東樂章』의 作品 收錄 양상과 編纂 특성」, 『語文研究』 第136號,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12
강재현, 「『해동가요』 소재 김수장 자작 시조 배열 의도」, 『어문연구』 제55집, 어문연구학회, 2007.12
권순열, 「삼구회(三九會) 연구」, 『고시가연구』 제20집, 한국고시가학회, 2007.8.
김병국, 「『정언묘선서』에 보이는 이정(移情)의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김상진,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의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과 문학치료」,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5

- 김상진, 「시조의 문학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제26집, 한국시조학회, 2007.1
- 김상진, 「政客 이정보와 시조, 그 逸脫의 의미」,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회, 2007.7
- 김용찬, 「안민영과 『승평곡』」, 『시조학논총』 제26집, 한국시조학회, 2007.1
- 김윤조, 「유득공의 시조 한역」, 『문헌과 해석』 제40호, 문헌과해석사, 2007.가을
- 김종규, 「『금가보(琴歌譜)』 장가형(長歌形) 및 향가 악구률(樂句律)의 실상」,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2
- 김주수, 「율곡의 대기(大器) 대음(大音)의 문예 의식」,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 김진영, 「동물(動物) 소재(素材) 사설시조(辭說時調) 연구(研究)」, 『동양예학』, 동양예학회, 2007
- 김창원, 「이현보에서 윤선도로: 족보의 가계도를 따라서」, 『고전과 해석』 제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4
- 김학성, 「18세기 초 전환기 시조 양식의 전변과 장르 실현 양상 -진본(珍本) 『청구영언』의 가집체계를 통하여-」,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 나정순, 「17세기 초의 사상적 전개와 정훈의 시조」,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회, 2007.7
- 남정희, 「『진본 청구영언』 내 평시조에 나타나는 여성적 목소리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12
- 남정희, 「『진본 청구영언』 無名氏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제53집, 어문연구학회, 2007.4
- 류해춘, 「가족갈등을 매개로 한 사설시조의 성담론」,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회, 2007.7
- 류해춘, 「商行爲를 媒介로 한 辭說時調의 性談論」, 『우리문학연구』 제22집, 우리문학회, 2007.8
- 문주석, 「19세기 고악보·가집의 음악론 고찰: <序>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26집, 한국시조학회, 2007.1
- 박규홍, 「변별요소(辨別要素)를 통해 본 시조(時調)와 가사(歌辭)의 경계(境界)」, 『한민족어문학』, 제5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12
- 박미영, 「白華 梁建植의 <時調論-그 復興과 改良을 促함->에 나타난 시조부흥운동과 시조인식」,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회, 2007.7
- 박상영, 「신흙 시조의 이중 구조와 그 의미지향」,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5

- 박이정, 「이중경(李重慶)의 노래에 대한 의식 및 시가 창작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5
- 박해남, 「신흥의 시조 창작 배경과 작품 양상」, 『반교어문연구』 23집, 반교어문학회, 2007
- 백민정, 「김광옥의 시조에 나타난 "강호"의 공간적 의미와 강호가도사적 의의」,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백은주, 「1990년대 한국 여성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으로서의 성(性) -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와 관련하여」,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12
- 변승구, 「장시조의 서사장르 수용과 그 의미」, 『어문연구』 제55집, 어문연구학회, 2007.12
- 변승구, 「장시조의 타 장르 수용양상과 표현방식-서정양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성호경, 「고려 말·조선 초의 시가 형식 변화와 장르 변천」,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 신경숙,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성립」, 『시조학논총』 제26집, 한국시조학회, 2007.1
- 신영명, 「시골로 내려온 서울,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시조학논총』 제26집, 한국시조학회, 2007.1
- 신은경, 「시조 종장 찾기 '두어라'의 연원에 대한 小考」,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회, 2007.7
- 신은경, 「시조(時調)와 가사(歌辭)의 시적 관습 형성에 있어서의 『두시언해(杜詩諺解)』의 역할 -종결표현을 중심으로-」, 『동양학』 제4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2
- 신향림, 「시조를 통해 본 양명학(陽明學)의 전래(傳來)와 확산(擴散)」,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12
- 안남연, 「황진이의 재조명」, 『한국어문학연구』 제4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구 동아어문학회), 2007.8
- 양희철, 「시조 생략종결의 기능 일면」, 『어문연구』 제53집, 어문연구학회, 2007.4
- 양희철, 「시조 생략종결의 함축 연구 -생략된 이형 문장성분들의 함축과 수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5.
- 양희철, 「시조 종장말의 동형구문 겹생략의 유형」, 『국제문화연구』 제25집,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2007.
- 양희철, 「시조 종장말의 이형성분 겹생략의 유형」, 『인문과학논집』 제35권,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이상원,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시가사적 위상」,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
가문학회, 2007.2
- 이상원, 「19세기 말 화서학파의 <고산구곡가> 수용과 그 의미」, 『시조학논총』 제
27집, 한국시조학회, 2007.7
- 이상원, 『客樂譜의 성격과 가곡사적 위상』, 『고전과 해석』 제3집, 고전문학한문학
연구학회, 2007.10
- 이영태, 「『청구영언』 ‘연장’ 등장 만회청류 재론」, 『시조학논총』 제26집, 한국시조
학회, 2007.1
- 이유진, 「19세기 시조창 대중화에 대한 재론」, 『국문학연구』 제16호, 국문학회,
2007.11
- 李濼旭, 「時調文學 텍스트의 문화콘텐츠화 研究」, 『우리문학연구』 제21집, 우리문
학회, 2007.2
- 임종찬, 「동양적 사유에서 본 백수 정완영 시조」, 『시조학논총』 제26집, 한국시조
학회, 2007.1
- 임종찬, 「시조의 한시역과 한시의 시조역의 문제점 연구」,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회, 2007.7
- 전재강, 「고시조에서의 정치의식 표출의 양상」,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
회, 2007.7
- 전재강, 「생활 표현의 고시조 연구」, 『시조학논총』 제26집, 한국시조학회, 2007.1
- 전재강, 「송도적 시조의 작가와 작품의 성격」, 『語文學』 第96輯, 한국어문학회,
2007.6
- 전재진, 「『남훈태평가』의 印刊과 개화기 한남서림 서적발행의 의의」, 『인문과학
』 제39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전재진, 「가집 『홍비부』의 전사본과 19C 후반~20C 초반 가곡의 변화 양상」, 『정
신문화연구』 통권 107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전재진, 「『樂府』와 統制營의 풍류-『興比賦』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42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11
- 조규익, 「시조발생 담론의 전개양상과 지향점」,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
회, 2007.7
- 조성진, 「만회청류와 明代 民歌에 나타난 眞情의 문제」, 『국문학연구』 제15호, 국
문학회, 2007.5
- 조태성, 「시조에 나타난 국화의 심상」, 『시조학논총』 제27집, 한국시조학회, 2007.7
- 조흥욱, 「사설시조와 한시의 관련 양상 연구」, 『어문학논총』 제26권, 국민대학교출
판부, 2007
- 허영진, 「조선후기 가집 연구의 시각과 해명 과제: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을 중

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10

4. 가사

<단행본>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윤성현, 『후기 가사의 흐름과 근대성』, 보고사, 2007
 조세형, 『가사의 언어와 의식』, 보고사, 2007

<학위논문>

김옥선, 「규방가사의 혼인갈등 양상과 여성의식의 변화」,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7.8
 박상석, 「<秋風感別曲> 연구 : 작품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7.2
 임재욱, 「12가사의 연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7.2
 하운섭, 「俛仰 宋純의 현실대응방식과 시적 지향」, 고려대 석사논문, 2007.2
 황인순, 「정철의 양미인곡에 대한 연구」, 순천대 석사논문, 2007.8

<학술지논문>

강홍구, 「울진 방언 가사문학 작품 <유람일기>의 운율의 분석적 연구」, 『어문연구』 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8
 권현주, 「《소정가사(素亭歌辭)》의 문학적 연구 -이회본을 중심으로-」, 『동양예학』, 동양예학회, 2007
 김광조, 「<누항사>에 나타난 ‘歎窮’의 의미」, 『고전과 해석』 제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4
 김광조, 「강호가사의 작중공간 설정과 의미 -<상춘곡>, <면양정가>,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회와 치산 관련 여성형상」,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6
 김유경, 「최초의 사행가사 <장유가(壯遊歌)>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김정화, 「현대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징과 시사적 의미 -광복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12
 김종진, 「<회심가>의 컨텍스트와 작가론적 전망」,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

가학회, 2007.11

- 박경주, 「兩性共有文學으로서 규방가사의 특성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8
- 박수진, 「옥국재 가사에 나타난 시·공간구조 연구」, 『온지논총』 제17집, 온지학회, 2007.9
- 안혜진, 「18세기 가사를 통해 본 경향사족간 의식의 거리 -향촌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6
- 안혜진, 「구강의 <사미인곡>에 나타난 문학적 특성과 의의」,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 윤덕진, 「송강가사 전승사실의 맥락」, 『洌上古典研究』 제26집, 洌上古典研究會, 2007.12
- 윤주필, 「경북중경진 연희시가를 통해 본 전통 공연문화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6
- 이승남, 「17세기 강호가사의 전환기적 서정 -정훈의 「용추유영가 와 「수남방옹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28집, 우리어문학회, 2007
- 이유진, 「<사미인곡>·<속미인곡>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문학치료연구』 제7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8
- 이정아,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한국고전연구』 제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6
- 이현주, 「유배가사(流配歌辭)에 나타난 체험인식과 표현양상」, 『고시가연구』 제2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8
- 정무룡, 「송강 <관동별곡> 독해의 새 시각 모색」,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 정한기, 「19세기 금강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寫景의 문학교육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8
- 조세형, 「후기가사의 표현 특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5
- 조연숙, 「<서방가(四方歌)>와 <안양찬(安養讚)> 고찰」,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2
- 조태성, 「18~9세기 불교가사에 나타난 현실 인식」, 『고시가연구』 제2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8
- 조태흠, 「<酒老園擊壤歌>의 구조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6집, 한국문학회, 2007.8
- 조혜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15호, 국문학회, 2007.5

5. 잡가 · 20세기 전반 시가

<학술지논문>

- 고은지, 「20세기 전반 소통 매체의 다양화와 잡가의 존재 양상 -잡가집과 유성기 음반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12
- 고은지, 「20세기 초 시가의 새로운 소통 매체 출현과 그 의미 -신문, 잡가집 그리고 유성기음반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5집, 민족어문학회, 2007
- 구사회, 「우고 이태로의 <농부가>와 애국적 형상화」, 『국어국문학』 제147호, 국어국문학회, 2007.12
- 구사회, 「우고(又顧) 이태로(李泰魯)의 『면암집초(勉菴集抄)』와 자료적 가치」, 『고시가연구』 제20집, 한국고시가학회, 2007.8
- 국윤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소재 흥타령 시조 연구」, 『고시가연구』 제20집, 한국고시가학회, 2007.8.
- 김영철, 「개화기 시가에 나타난 연속성의 제양상」, 『우리말글』 제41집, 우리말글학회, 2007.12
- 박애경, 「고전문학과 공간적 상상력: 대한제국기 가사에 나타난 이국 형상의 의미 -서양 체험가사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6
- 서영숙, 「처첩관계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향유의식」, 『어문연구』 제55집, 어문연구학회, 2007.12
- 신경숙, 「일제 치하 조선노래를 지켜온 창가 교사, 李尙俊: 이상준 잡가집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1집, 국제어문학회, 2007.12
- 신현규, 「『朝鮮美人寶鑑』에 수록된 唱歌 研究」, 『우리문학연구』 제21집, 우리문학회, 2007.2
- 육민수 「『편편기담경세가(片片奇談警世歌)』와 『만고기담처세가(萬古奇談處世歌)』의 출판 배경과 텍스트지향」, 『한민족어문학』, 제50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6
- 조규익, 「창가의 형성에 미친 번역 찬송가의 영향」, 『온지논총』 제16집, 온지학회, 2007.5
- 최현재,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6집, 한국문학회, 2007.8
- 홍성란, 「時調의 開化期時代 形式 轉變 樣相」, 『語文研究』 第136號,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12

6. 일반론 · 기타

<단행본>

고운기, 『한국고전시가의 근대』, 보고서, 2007

최규수, 『고전시가 연구의 전망과 모색』, 다운샘, 2007

<학술지논문>

강명혜, 「고전시가와 스토리텔링」, 『온지논총』 제16집, 온지학회, 2007.5

고정희, 「고전문학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문학사적 교육-고전시가와 대중가요의 연계성 문제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8

김윤희 · 김승우 · 하운섭, 「고전시가 2006년 연구동향」, 『고전과 해석』 제3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10

김정례, 「시조와 하이쿠의 창작과 향유 방식의 비교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18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07

나정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시가"와 "가요"의 문제」,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5

박영준, 「韓日 定型詩歌 比較研究」, 『語文論集』 제36집, 중앙어문학회, 2007.3

신윤경, 「현대시조 창작의 지향점과 그 존재 의의 -고시조의 형식미와 율격을 바탕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3집, 한국시가학회, 2007.11

이형대, 「고대에서 근대전환기까지 모성 담론의 문화적 조명 : 규방가사 · 민요 · 계몽가사의 모성 표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이형대 · 임경화, 「한 · 일 고전시가 어부 형상의 전개와 그 대비적 특질 -한시와 민족어시가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2집, 한국시가학회, 2007.5

林基中, 「세 가지 假說과 몇 가지 疑問」, 『語文研究』 第136號, 한국어문교육연구학회, 2007.12

임주탁, 「우리말 노래 창작의 사상적 기반: 주체와 타자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제16호, 국문학회, 2007.11

정병헌, 「고시가 연구의 시각과 전망」,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2

정우택, 「아리랑 노래의 정전화 과정 연구」,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조규익, 「송도(頌禱) 모티프의 연원과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12

- 조세형, 「한국 애정시가의 전통과 시공간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제147호, 국어국문학회, 2007.12
- 조태성, 「초·중등학교 시조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텍스트 수용 현황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2
- 최규수,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몇 가지 키워드」, 『한국고전연구』 제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 최재남,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고시가연구』 제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2